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성남일보

snilbo.co.kr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두리인력파출부

www.dooryjob.com
1566-8814



제43호 | 발행일 : 2013년 8월 26일~31일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지역민의 목소리 청취하겠다”

장영하 위원장(민주당, 분당을)



— 주요 프로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성남가정법률상담소 이사
- 이웃사랑모임 총회장
-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문
- 성남카네기총동문회장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성남일보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있습니다.

2000년 7월 6일 창간된 성남일보가 창간 13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그동안 성남일보 자매지로 발행된 '뉴스데이'를 '주간 성남일보'로 제호를 바꾸고 OFF-LINE과 ONE-LINE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성남일보는 제왕적 지방자치권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풀뿌리 지역언론의 새로운 장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려 합니다.

www.snilbo.co.kr



섬유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

경기도, 60개 기업 '라스베가스 매직쇼' 참가 공동관 운영

경기도와 중기센터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섬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라스베가스 매직쇼'에 참가한다.

이번 2013 추계 라스베가스 매직쇼는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주시장 최대의 토탈 패션과 섬유 종합 전시회로 세계 30개국 100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중기센터는 도내 60개 섬유기업을 위한 경기섬유마케팅센터(이하 GTC : Gyeonggi Textile Marketing Center) 공동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GTC는 지난 2월에 열린 춘계 전시회에도 참가해 도내



50개 섬유기업을 위한 공동관을 운영했으며, 총 654만불의 상담실적을 달성해 이번 추계 전시회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경엽 본부장은 "GTC가

전시회 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라스베가스 전시회에서도 전력을 다해 도내 섬유 기업들을 지원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여름밤의 농악한마당 성료

광주시 광지원농악보존회 다채로운 공연 선보

광주시 광지원농악보존회는 지난 10일 중대동에 위치한 물빛공원에서 '제 12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광지원농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광지원농악 판굿 공연을 비롯해 쇠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등 화려한 개인기를 비롯한 재담이 있는 버나와 살판, 무동놀이가 열두발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소리코리아 대표 박윤정씨의 경기민요와 'sbs세

상의 이런일이'에도 출연한 바 있는 남창동(13)군이 줄타기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문화적인 향수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한 광지원 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연이었다.

수원에서 공연을 보러온 한 관객은 "가족과 함께 한여름 밤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좋은 공연을 관람했다"고 말했다.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뜬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8월의 추천지 선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힐링의 메카로 불리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을 8월의 추천 자연휴양림으로 선정했다.

산음자연휴양림은 잣나무, 낙엽송이 빼곡한 숲에서 기체조, 음이온명상, 소리 치유 등 숲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휴양림 내 시원한 계곡

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치유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휴가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또한 이시형 박사가 촌장으로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과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운골생태마을 등 주변에 힐링과 전통

체험이 연계된 관광 명소가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차량으로 9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숙박시설을 예약 못한 경우에도 당일 힐링휴가 장소로 이용해도 손색이 없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을 맞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산음자연휴양림을 추천한다"며 "숲 치유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 산음자연휴양림에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태양광 발전 경로당 설치 가동

용인시는 남사면노인회분회 경로당 등 5개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난 달 중순에 착공, 지난 8일 설치가 모두 완료돼 본격 가동 중에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 경로당 설치의 폭염과 한파 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충

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설치용량은 3KW 규모로, 매월 약 324KW의 전기를 생산해 경로당별로 전기요금을 30-50%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칼럼

정재영 / 경기도의회 의원

남한산성은 유원지도 관광지도 아니다

조선시대 후기 해학과 풍자로 팔도를 유람하던 방랑시인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金炳淵·1807~1863)이다. 그가 삿갓을 쓰고 방랑시인이 된 사유는 이렇다.

안동김씨 세도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김병연이 다섯살때, 평안북도에서 흥경래가 주동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김익순은 선천부사로 재임중이었지만, 반란군을 진압하기는 커녕 투항하고 말았다. 민란이 진압된 후 조정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중벌을 내리니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고 말았다.

멸족을 우려한 김병연의 부친은 형과 함께 그를 황해도 곡산으로 보냈고, 어린 그는 노비의 집에 숨어 살다가 영월에 정착했다. 집안을 다시 일으켜 보려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김병연은 글 공부에 힘썼다.

나이 스물, 영월 관아에서 백일장

을 보게 됐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공교롭게도 시험제목은 '가산군수 정시의 충절을 찬양하고 역적 김익순의 죄를 한탄하라'였다. 가산군수 정시는 흥경래의 난때 끝까지 싸우며 장렬하게 죽은 충신으로, 그를 역적 김익순과 비교하라는 것이었다.

김병연은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해 '역적 김익순은 한번은 고사하고 한번 죽어 마땅하고 너의 치욕스러운 동국의 역사에 유전하리라'고 썼고, 이 글로 장원급제하게 된다.

기쁜 마음으로 장원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렸으나 시제에 거명된 인물이 그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고 크게 뉘우치며 벼슬길을 포기했다. '아! 이제 나는 하늘을 우려 볼수도 없구나'라며, 조상을 뵈면 목이 없고 하늘에 부끄럽다고 해 항상 삿갓을 쓰고 얼굴을 가려 참회와 속죄의 길을 걸기로 한 것이다.

스물다섯 나이에 기나긴 방랑길에 들어서 57세때 전라도 지방에서 객사, 생을 마친 천재 방랑시인 김삿갓 이야기다.

여기서 김삿갓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100만 성남시민 모두가 삿갓을 쓰고 다녀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년전에 '남한산성은 유원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당시 기고내용을 요약하면 남한산성은 1천330여년전 신라 문무왕(672년)때 축성돼 1636년 병자호란을 비롯, 수많은 외침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지켜온 국난극복의 성지다.

1963년 대한민국 사적 57호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성곽, 행궁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가 있는 자랑스런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호국 성지가 성남시 거리 곳곳에 '남한산성 유원지'라고 표시된채 그렇게 불린다면 김삿갓이 자기 할아버지인줄 모르고 만고의 역적이라고 욕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남한산성은 더이상 유원지도 관광지도 아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배우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며 민족호국 성지일 뿐이다.

'남한산성 유원지' 대신 '남한산성도립공원 입구' 또는 '은행동 시민공원' 등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지. 함께 고민하고 빨리 고치자.

/새누리당·성남8

파워인터뷰 장영하 위원장(민주당. 분당을)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시급하다”

소통하는 정치 실천할 터... 초심의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 시작

지난 14일 분당을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영하 변호사(54)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위원장은 초심의 마음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소감은.

올해 들어 교회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직책을 처음 맡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민주당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분당을 지역을 관리해 오신 김병욱 전 지역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지역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보는데.

반대에 대한 근본 원인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세계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반대한 분들과 만나 지역위원장으로 해야 할 일을 경청하고 당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당 소속의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는 성남시를 위해, 민주당을 위해 성공한 시장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번 조직책 공모가 내년 시장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저는 조강특위에서 밝혔지만 분당을 지역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사고지역인 분당을 지역위원회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을 지역 당원들과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시장 출마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지난 2006년 민주당 시장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후 총선 등에 도

전장을 던졌다. 지역위원장으로서는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생과 교육, 민주주의의 발전 등에 대한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지역의 당원과 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을 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당원이면서 지역의 생활인인 분들부터 행복해져야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원이 행복하고 당원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원과 더 쉽게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별칭이 디지털 변호사 이듯이 IT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 장영하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저의 정치 지도자의 표상은 사회주의 속에서도 ‘흑묘백묘론’ 같은 실용주의를 표방한 등소평입니다.

좌파, 우파 정책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의의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힘을 길러주어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와 역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포류하지 않으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IT를 활용하여 정보공개, 상호협력, 소통과 감시, 자율과 책임행정 등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치와 실용주의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수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호남향우회 회장을 역임해 향우회와의 관계 정립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호남향우회는 고향과 성남의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려는 애향심을 가지고

젊은 세대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새로운 친목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뜻이 다른 일부 임원들의 지나친 부당 행위에 대해 법에 호소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우회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최근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서 다른 분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면서 향우회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에 대한 견해는.

서양에 비해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보니 아직도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 결과에 따라 지역이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과정으로 봅니다.

지방자치가 더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난 가을 발간한 저의 저서 ‘IT로 부르는, 희망의 노래’에서 제시한 것처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자치행정시스템을 만들고 공무원이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이 건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성남법원 판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에 정착한지 24년 동안 성남시에서 생활을 하고, 기업을 일구어 고용을 창출하고, 미력하나마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남지역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경력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었지만 몇몇 분들은 그것으로 비난을 하시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시작한 이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기회가 있어도 당적을 옮기지 않은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직책을 처음 맡은 분당을 지역위원회에서 정치초년생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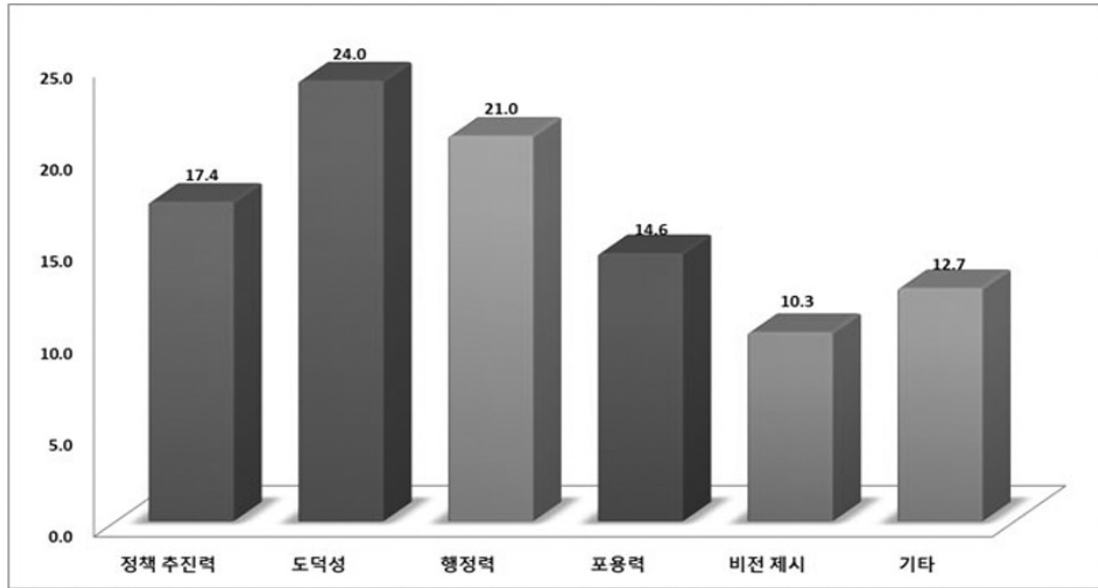
여론조사 심층분석 이재명 성남시장, 차기 성남시장 재출마시

‘반대’가 ‘찬성’보다 앞서 박빙 승부 예고!

[공동여론조사 분석 1]

민선5기 성남시정부 3주년을 맞아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표심을 묻는 항목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기 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지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가 10명중 4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지만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어서진 못했고,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와 반대 여부가 판가를 나면서 치열한 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정치쇄신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안철수 신당(가칭)의 3자 구도 아래서 치러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 시장 후보군들의 물밑 움직임에 상당한 영



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민주당 25.2%, 안철수 신당(가칭) 10.5%, 통합진보당 2.5% 순이었다.

아울러 지지정당 없음도 27.0%를 보여 부동층의 행배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경우 성남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성남이 민주당의 강

세지역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로 민주당 이재명 현 성남시장의 차기 시장 출마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겠다’가 40.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지지하겠다’ 38.2%, ‘잘 모름’ 21.8% 순으로 나타나면서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소속 현

직 시장의 차기 지방선거 시장 재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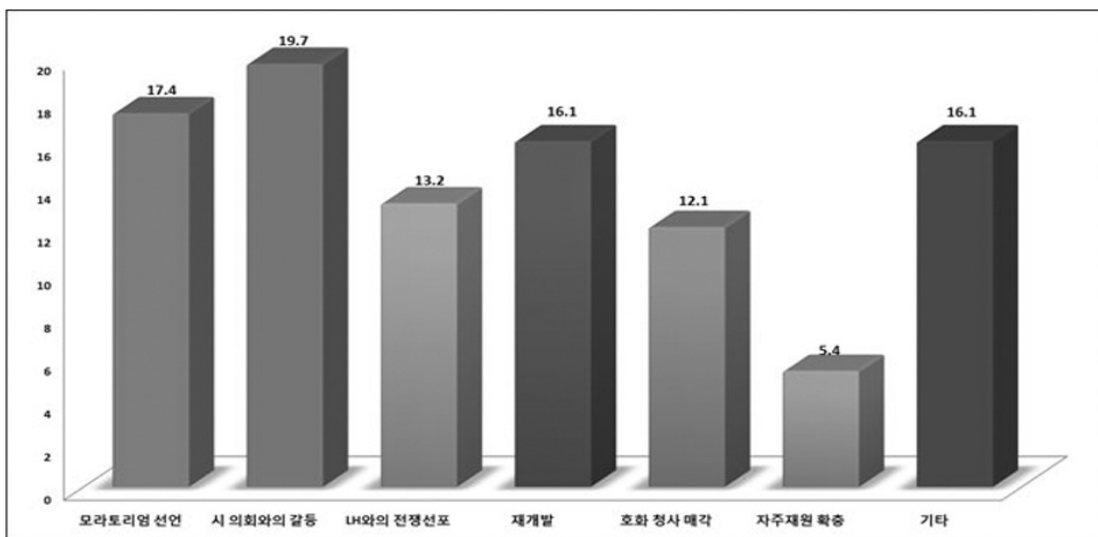
‘지지하지 않겠다’의 연령대와 성별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현직 시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남성(44.8%)이 여성(40.3%)보다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42.8%대 28.7%로 압도적인 반대를 나타낸 반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평균 10% 차이로 지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민주당 지지도를 반영했다.

이밖에 성남지역 유권자들이 차기 시장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덕성’이 24.0%로 가장 많았고 ‘행정력’ 21.0%, ‘정책추진력’ 17.4%, ‘포용력’ 14.6%, ‘비전제시’ 10.3% 순으로 조사돼, 유권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추문과 음주 운전 등과 같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시의회와갈등, 모라토리엄,내와전쟁선포



[공동여론조사 분석 2]

성남시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들어 성남시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 중 ‘시의회와의갈등’(1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민선5기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

예) 선언’(17.4%)과 ‘본시가 지 재개발’(16.1%), 최근 분당구 백현동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선언한 ‘LH와의 전쟁선포’(13.2%)가 뒤를 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상생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배치되는 ‘부정적 리더십’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민선5기 성남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떠올렸다는 원인은 인권변호사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얻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이재명 시장의 ‘튀는 행보’나 다름없는 ‘오버액션(overaction)’으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전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갈등에서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기업의 정문을 파손하면서까지 보여준 이재명 시장의 ‘강공(強攻) 드라이브식’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던 것과 이번 여론조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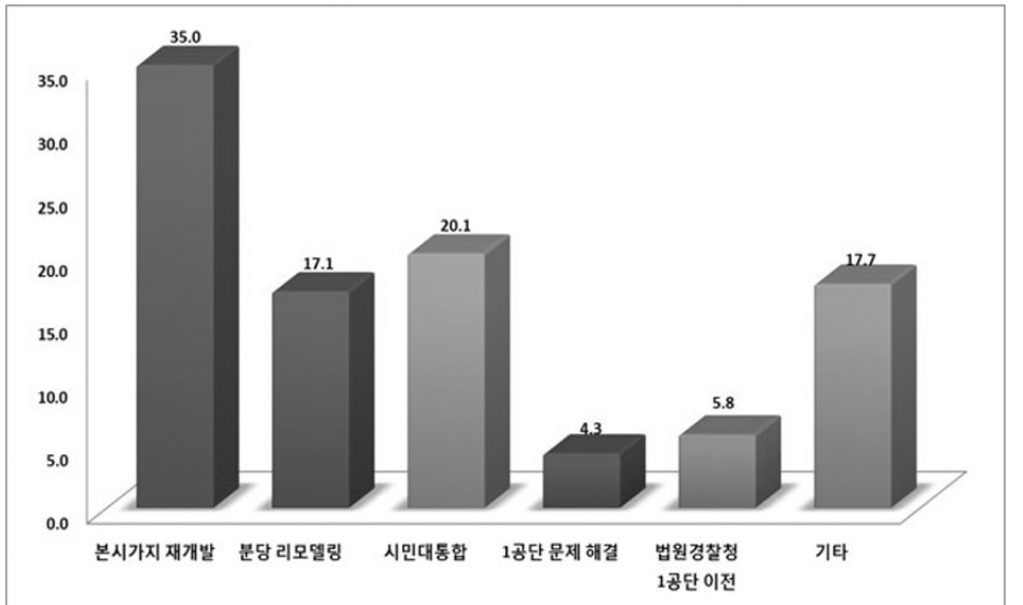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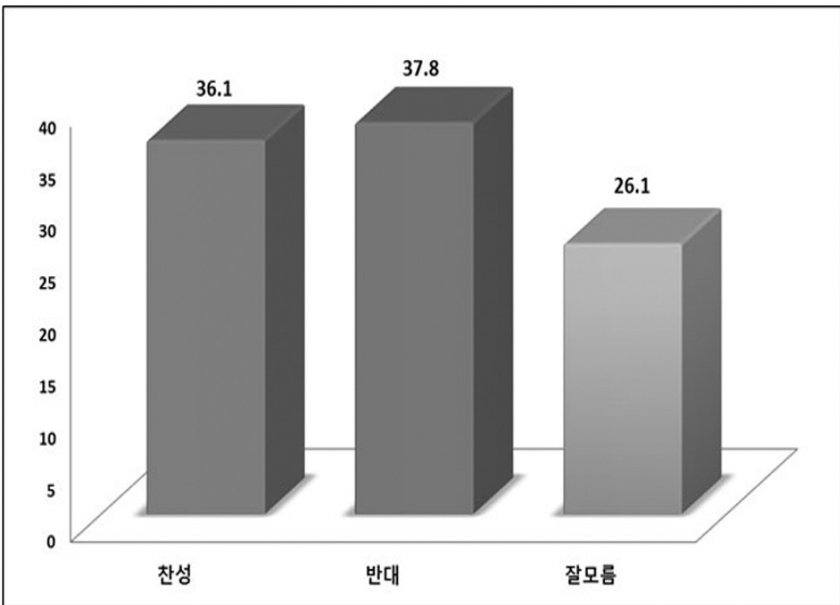
이와 함께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반복되었던 시의회와의 갈등은 준예산 사태와 같은 성남시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성남시가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체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시민들의 성남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연상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소속당인 민주당이 시의회 의석 분포상 소속당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선택한 ‘황금분할’ 구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시의회와 소통과 상생구도를 통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시정 운영에서 기인하는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남시의 숙원인 ‘본시가지 재개발’ 문제가 연

상 이미지에서 세 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도 워낙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시장실 CCTV 설치와 같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미지 정치’ 지향성의 ‘튀는 행보’가 재개발이라는 현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호화정사 매각’ 부분도 이 시장이 지난 2010년 취임하면서 민선4기와의 차별성을 의식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여수동 청사 매각’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여찌된 이유에서인지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염불’에 불과했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여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민선5기 성남시의 대표적인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된 ‘시의회와의갈등’과 ‘모라토리엄 선언’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구별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분당구민들이 수정·중원구민들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돼 정당지지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많아 추진 '무리수'

주요 현안 본시가지 재개발과 시민대통합 '시급'

[공동 여론조사 분석 3]

성남시가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추진중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근소한 차이지만 '설립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 4개사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결과 시민들의 의견은 '설립 반대'가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설립 찬성'이 36.1%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이 26.1%

로 집계됐다.

구별 주민들의 응답을 살펴 보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중인 가운데 해당지역인 분당구민들은 44.2%가 '설립 반대' 의사를 보여 30.5%를 기록한 '설립 찬성' 의견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돼 본시가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수정·중원구민들의 경우 '설립 반대'보다는 '설립 찬성' 의견이 평균적으로 10%p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재개발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 공사·공단 등을 포함한 공기업들의

전문학적인 부채 누적 문제의 심각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는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 설립 자본금(50억원)의 시의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등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 청산작업 진행 등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설립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재정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립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시

장의 선택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재정전문가 그룹과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지방공사 설립 시 부채 누적 가능성으로 인한 시 재정파탄 염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내년으로 다가온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의 항배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성남시민들은 2013년 현재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는 '본시가지 재개발'

(35.0%)을 제일 시급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어 '시민대통합' (20.1%)과 '분당리모델링' (17.1%)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시민대통합'을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주요 현안 가운데 두 번째로 꼽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성남지역사회에서 정권 유지세력과 반대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만큼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검찰청의 1공단 이전문제'와 '1공단 공원화 문제' 등은 각각 5.8%와 4.3%를 기록해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일단 후순위로 밀렸지만, 언제든지 수면위로 올라와 성남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남시, 중복척결대회 앞두고 안보단체 꺼안기

이례적 '성남시보훈·안보도시 선언'... 보수단체, 중복척결대회 의식한 행보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분당 야탑역에서 '중복척결 8.15 성남시민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성남시가 연일 보훈·안보단체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9일 '애국지사 지원 확대 각 단체·협회 감사패 잇따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매일 1쪽지 이상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13일 대변인 브리핑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보훈·안보도시 선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남시가 보훈·안보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

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남시의 이례적인 보훈·안보도시 선언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6시 야탑역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인 중복척결 8.15 성남시민대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민행동본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출범 후 성남시가 중복의 근원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복척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중복세력 축출 발언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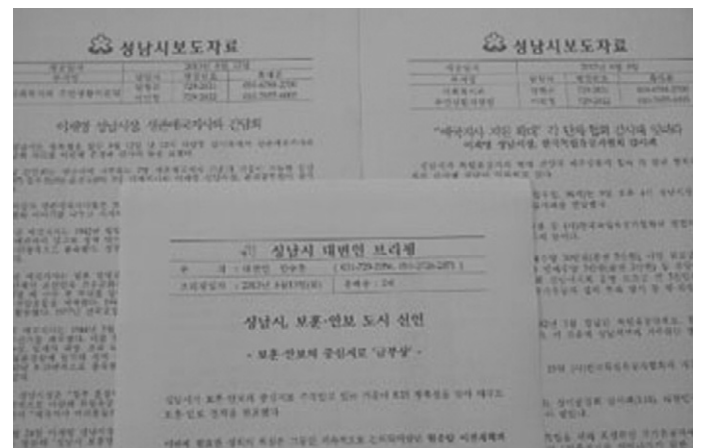
미홍 전 KBS 앵커가 사회자로 나선에 따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8.15를 맞아 의례적으로 자료를 낸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중복척결대회 불편한 심기 표출

[가십gossip세계]

◇... 이재명 성남시장에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하면 중복세력이나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보수단체들이 오는 15일 야탑역에서 중복척



결성남시민대회를 갖는 것과 관련, "몇몇 보수단체들이 민주당 소속인 내가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한다는 이유로 중복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나처럼 통합진보당과 연대해서 시정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모두 중복세력이나"고 비판.

또한 이 시장은 "밭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시장 취임후 성남시를 안

보도시,보훈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

이에 대해 중복척결성남시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보수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출범후 성남시가 중복의 근원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복척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중복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성남시설공사 특혜성 인사 의혹

상통노조 “계약직 직원 일반직 전환 관련 진실 규명 나설 것”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통노동조합(위원장 한기봉, 이하 상통노조)은 지난 12일 공단이 최근 실시한 인사발령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직원 1명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인사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상통노조는 ‘특혜성 일반직 전환 인사, 공단은 해명·사과·최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단에서 일반3급 직위라고 하면 공단 직원이 최하위직인 일반8급으로 입사한다 하더라도 최소 15년 이상이 걸려야 겨우 승진이 가능할 정도로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리여서 공단이 이번 인사를 통해 채용 당시 계약직 3급 대우 상당의 조건이었던

그 직원에 대해서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3급 직원으로 전환시켜준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성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통노조는 “아직도 공단에는 일반7급으로 10년이 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이고, 일반4급으로도 십수년을 묵묵히 근무해온 간부들도 많은데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곧바로 일반직의 최고위직 수준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을 공단 직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상통노조는 “이번 공단의 특정인에 대한 일반직 전환 인사는 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 공단 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불공정, 특혜성 인사라고 단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통노조는 “우리 상통노조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해 안전행정부와 감사원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 규정에 의해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음악회

오는 31일 성남아트센터서 개최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박용준)는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2013 장애인과 바비킴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한다.

제40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공연은 전혜리의 사회로 스타킹 스타 유지민, 인기가수 바비킴, 장애인 클라리넷 김우진, 한국외국인합주단이 출연한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는 1998년에 창단돼 현재 초·중·고·대학생 9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3관 편성 악단으로, 2000년 이탈리아 로마 세계문화축제축전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헝가리 데브레첸시립교향악단, 일본 미야자키현 청소년취주악단, 대만 화련 여성합창단과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공연문의: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사무국 010-2767-3378)



전하진 의원 ‘전기사업법’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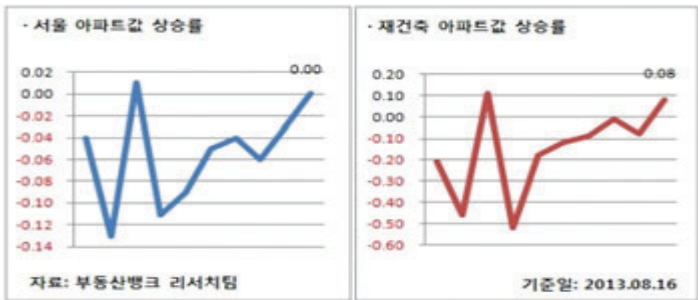
법제화통해 수요관리시장 개척... 전력시장 다변화

찌는 듯한 무더위로 올해 최악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어 최근 3일 동안만 수요관리에 100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실상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수요(부하)관리사업’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들에게 1kw를 안 쓰는 대신 500~800원의 전력기반기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가장 비싼 발전수단인 LNG발전(첨두발전) 단가 160원대보다 최소 4배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싼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선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해 전력수요를 효율화해 향후 200만kw 이상의 수요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 휴가철 매매시장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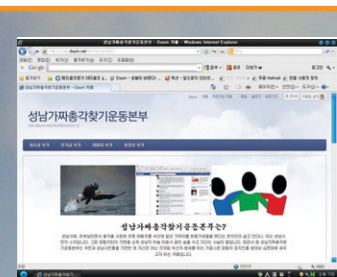
전세시장 열기와 대조 성남시, 0.04% 기록

요란한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다. 부동산뱅크가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0.01%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이어 서울 0.00%, 경기도 -0.04%, 인천시 -0.02% 등 수도권은 불황이 점점 더 깊어진 모습이다. 또 경상권 0.10%, 전라권 0.05%, 충청권 0.02%, 강원권 0.00%, 세종시 0.00% 등으로 지방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시 0.12%, 김포시 0.11%, 남양주

시 0.06%, 화성시 0.04%, 부천시 0.03%, 광주시 0.03%, 광명시 0.02%, 안산시 0.01%, 시흥시 0.01% 등은 집값이 전주에 비해 올랐다. 이어 가평군 0.00%, 과천시 0.00%, 구리시 0.00%< 동두천시 0.00%, 안성시 0.00%, 양평군 0.00%, 여주군 0.00%, 연천군 0.00%, 오산시 0.00%, 의왕시 0.00%, 평택시 0.00%, 포천시 0.00%, 하남시 0.00% 등은 집값이 보합이었다. 또 고양시 -0.22%, 군포시 -0.14%, 안양시 -0.13%, 수원시 -0.06%, 성남시 -0.04%, 용인시 -0.04%, 양주시 -0.03%, 의정부시 -0.03%, 파주시 -0.03% 등은 약세였다.

신도시에서는 산본 -0.20%, 평촌 -0.14%, 일산 -0.08%, 분당 -0.01%, 중동 0.00% 등으로 불황을 이어갔다.



정리판이 정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리판이 쇠신되기를 바라십니까?
사기꾼 정치인은 물러가라고 외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남가짜총각찾기운동본부(가총본부)를 만나십시오!
성남에서부터 정치판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가총본부는 성남시에 살면서, 유부남인 자가 총각을 사칭해 유명 여배우를 속인 채 일년 가까이 반동거 생활을 했다는 파렴치한 정치인을 색출해 국민·시민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성남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성남시민의 수치입니다. 또한 그런 파렴치한이 가면을 쓴 채 성남의 하늘 아래서 일반 시민들과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판에 몸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입바른 소리를 하고, 뒤에서는 총각을 사칭한 채 여배우를 농락했던 쓰레기 같은 자가 지금 성남에서 버젓이 정치인으로 활보하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성남시민들의 힘을 모아 걸 다르고 속 다른, 변호사 출신이라는 그 가짜총각 정치인을 반드시 색출해 진실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인터넷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에 카페(성남가짜총각찾기운동본부)가 개설돼 운영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회원 가입(비실명, 닉네임 가입 가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가짜총각찾기운동본부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공직자 윤리 '실종'

일부 임원,수년간 관용차 사적 이용... 수천만원대 혈세 낭비

#1

비가 내리던 지난 7월 1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쯤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검은색의 66허 3735호 YF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30여분이 지난 후 한 남성 A씨가 아파트에서 나와 검정 승용차에 오르자 그 승용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15분후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 정차했고, 그 남성은 차에서 내려 체육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2

지난 7월 16일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 정차되어 있던 검은색의 경기33구 8701호 SM520 승용차 한대가 남성 B씨를 싣더니 탄천종합운동장 남문을 빠져나와 우회전을 하더니 수정구 시흥동 사거리쪽으로 향해 달려갔고, 이어 Y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멈추어 섰다.

#3

퇴근 시간대인 7월 18일 오후 6시 5분경,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는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서있었다. 맨 앞에는 검은색의 SM520 차량이었고, 흰색의 NF소나타, 검은색의 YF소나타였다. 이 승용차들은 공단 사무실에서 나오는 임원들의 퇴근을 위해 대기중이었던 것이다. 이중 두 대는 공단의 업무용차량(관용차)이고, 흰색의 NF소나타만이 공단 직원의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카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출근 시간대인 8월 5일 오전 7시 10분쯤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지하 주차장에 서있던 검은색의 경기33구 8701호 SM520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더니 분당구 정자동 방면으로 주행하기 시작했고, 이어 KT본사가 있는 정자동 인근에서 남성 B씨를 태운뒤 성남대로를 달려 7시 55분쯤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에 도착한 뒤 B씨가 내리자 시청 주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성남일보를 비롯해 도시신문, 분당신문, 스포츠성남 등 성남 지역 언론 4개사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언론사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임원들의 출퇴근 상황을 취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공동취재단의 취재 결과 부패방지법 등에 의해 공직자 신분인 공단의 임원들이 근무 시간(오전9시~오후6시)에만 쓰도록 된 규정을 무시한 채 수년간 업무용 차량(관용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거나 퇴근후 골프연습장에 가면서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상황들이 취재망에 포착된 것이다.

이처럼 공단의 임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면서 엄청난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등 관용차의 사적이용이 도를 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의 임원들이 시민혈세로 지원되는 공단 운영예산을 '개인 배불리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어 귀



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자윤리행동강령에는 공용물의 사적이용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자체나 중앙부처 감사반들이 투입돼 강령 위반 여부를 압행감찰에 나서기도 하는 등 업무용차량의 사적수익은 청렴의무 위반 사항인 것이다. 공단도 '임직원행동강령시행세칙'을 만들어 '임직원은 업무용차량 등 공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단 임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사적인 이용이 지난 2010년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낭비된 시민 혈세만 해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공단 운영예산을 '임원 개인 배불리기'에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 임원 2명에게는 전용차량 운전기사가 별도로 배정돼 임원들의 출근부터 퇴근 후까지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동행하는 등 엄청난 특전이 베풀어지고 있는 실정 이어서, 성남시청을 비롯해 다른 산하기관의 국장 및 본부장들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중 한 임원의 경우 과거 한 언론사의 취재진이 이 임원의 출퇴근 상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사적사용이 적발된 이후 출퇴근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가 아니라 도로변에서 공단 업무용 차량을 오게 해 타고 내리는 등 비밀 첩보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공단 직원들의 목격 증언들이 전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들 공단 임원 2명이 지금까지 관용차 사적이용금지 원칙을 어긴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첫째, A임원의 경우 공단 부임일 2011년 2월 이후 29개월 동안 출퇴근을 개인 승용차로 할 경우 한달 30만원의 기름값(직장인 평균치)으로 계산하면 그동안 주유비가 870만원이다.

또한 공단 직원의 경우 공단 청사를 출입

하기 위해서는 매달 2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A임원은 모두 58만원의 주차카드 비용을 절약하는 이득을 보았다.

아울러 A임원을 위해 공단에서 YF소나타를 렌트한 비용이 매월 수십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용차 운전기사인 P모 직원의 경우 시간의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매월 50만원 한도의 시간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중 임원 수행을 위한 운전의 시간의 근무를 절반만 적용한다고 해도 25만원이다.

둘째, B임원의 경우 2010년 10월 부임 이후부터 33개월간 출퇴근을 SM520차량으로 한만큼 이 차량에 들어간 주유비는 990만원인 셈이다.

또 공단 주차장 사용료 매월 2만원을 33개월 동안 내지 않고 관용차를 이용했으니, 모두 66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K모 직원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 이후 B임원을 태우고 다는 동안 시간의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시간의 수당이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다. 이 경우도 앞서 A 임원 전용차 운전기사인 박씨와 같이 적용하더라도 매월 25

만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종합해볼 때 추산되는 모든 비용은 총 최대 5천1백여만원에서 최소 3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수년간 성남시민의 혈세가 공단 임원 A, B씨의 <관용차 사적이용>을 통해 헛되게 쓰여지며 줄줄이 새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2010년 민선5기 출범 당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했었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이었고,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성남시 산하기관이라는 공단에서는 성남시장의 낙점으로 공단의 최고위직에 내려왔다는 임원들의 관용차 사적이용으로 인한 성남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으로 둔갑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수년동안 낭비되고 있었던 셈이다.

공단의 한 직원은 이와 관련해 "본부장 임원들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회사 업무용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만큼 두 임원들의 위세가 심해 잘못하면 찍힐까봐 잘못된 줄 알지만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라면서 "직원들에게는 관용차를 출퇴근시 이용과 같이 사적으로는 절대 쓰지 말라고 청렴서약까지 받아놓고는 정작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할 최고위직인 임원들이 오히려 수년동안 관용차를 개인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지경으로 이들의 행태를 보면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상락 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데 임원이 공사를 구분못한다고 하니 이사장으로서 부끄럽다"며"알아 보고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지역언론공동취재단)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주간 성남일보

발행·편집인 : 모동희
 등록일 :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 경기 다00907
 홈페이지 : www.snibo.co.kr

발행처 :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29-4 광장빌딩 505호
 구독·광고문의 : 031-721-9922
 메일 : webmaster@snibo.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하지 않겠다’ 40%

민선5기 3년 여론조사... 성남시 이미지로 ‘시의회와의 갈등’ 꼽아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재출마 시 지지하지 않겠다(40.0%)라는 대답이 지지하겠다(38.2%)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 4개 언론사(도시신문, 성남일보, 스포츠성남, 분당신문)는 민선5기 3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에 의뢰해 민선5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평가와 더불어 성남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0.0%의 주민들이 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으며, 특히 분당구의 경우 42.8%로 높게 나타나 수정구(40.4%), 중원구(34.8%)보다 재지지하지 않을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 동별로는 여권 성향이 강한 금곡동(72.9%), 수내1동(78.8%), 서현1동(84.2%), 이매2동(95.8%) 등에서 많았으며, 심지어 정자3동에서는 응답자 전체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지지(40.3%)가 5% 가량 높은 반

면, 남성은 지지하지 않는(44.8%) 경우가 8.8%를 더 높아 남녀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44.9%)와 40대(47.1%) 지지의사가 높았지만, 30대(35.1%)와 50대(46.3%), 60대이상(39.5%)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5기 성남시하면 떠오르는 주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성남시의회와의 갈등’(19.7%)이 가장 떠오른다고 꼽았으며, 이어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모라토리엄 선언’(17.4%), ‘재개발’(16.1%), ‘LH와의 전쟁선포’(13.2%), ‘호화청사 매각’(12.1%), ‘자주재원 확충’(5.4%) 등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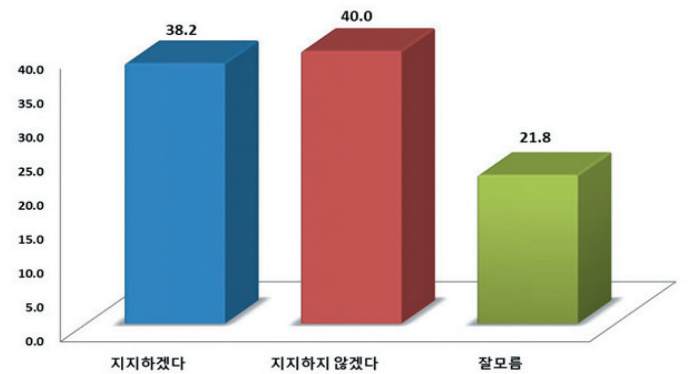
최근 성남시가 설립 강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37.8%) 의견이 찬성(36.1%)보다 다소 많았으며, ‘잘모른다’는 응답도 26.1%였다. 구별로는 분당구의 경우 반대(44.2%)가 찬성(30.5%)보다 많았지만, 수정구는 찬성(41.6%)이 반대(34.1%)가 높았고, 중원구도 찬성(41.7%)이 반대(28.8%)보다 높아 신구도시 의견차이가

분명했다.

양 도시 입장 차이는 성남시 주요 현안을 보는 시각에서도 뚜렷하게 갈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시가지재개발’(35.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시민대통합’(20.1%), ‘분당리모델링’(17.1%), ‘법원검찰청 이전’(5.8%)과 ‘1공단 문제 해결’(4.3%)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구별로 살펴보면 분당구는 ‘분당리모델링’(30.4%)을 우선 꼽았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각 45.7%와 56.3%로 ‘본시가지 재개발’을 우선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구 모두 공통적으로 ‘시민대통합’을 두 번째 주요 과제로 올려놨다.

내년 6월 치러지는 민선6기 성남시장 선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덕목으로는 도덕성(24.0%)을 가장 중요시 여겼으며, 이어 행정력(21.0%), 정책추진력(17.4%) 포용력(14.6%), 비전 제시(10.3%) 등을 하는 후보를 선택할 의사를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성향은 행정력(22.2%)을 최우선시하고 정책추진력(20.2%)을 선택한 반면, 민주당 성향에서



는 도덕성(20.4%)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정책추진력(19.3%)을 선택했다. 특이하게 통합진보당 성향에서는 도덕성(20.4%)과 정책추진력(19.3%)보다 오히려 포용력(42.8%)이 매우 높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성남시 전체에서 새누리당이 35.2%로 가장 앞섰으며, 이어 민주당(25.2%), 안철수신당(10.5%), 통합진보당(2.1%)의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대답도 27.0%였다.

새누리당은 중원구(38.0%), 분당구(34.9%), 수정구(33.2%) 순으로 전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민주당은 수정구(29.8%)가 가장 높았고, 중원구(25.5%)와 분

당구(22.7%) 순이었다. 국회의원을 배출한 통합진보당은 수정구(5.1%), 중원구(1.8%), 분당구(0.7%) 모두에서 낮았다.

새롭게 떠오르는 안철수신당은 수정구(11.4%)와 중원구(10.8%), 분당구(9.7%) 모두에서 통합진보당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경기 성남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동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이다.

/여론조사공동취재단 (관련 기사 4~5면)

보수단체 “이재명 성남시장 심판하겠다”

종북세력척결시민대회 매월 개최... 다음 시장 제대로 뽑아야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출범 후 종북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이재명 시장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종북척결 8.15 성남시민대회’를 갖고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이재명 시장을

심판하기 위해 매월 종북척결 시민규탄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최인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를 호국보훈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보훈단체들은 (이재명 시장에게)종북정당과 연대한 걸 끊을 수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인식 집행위원장은 성남 지역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해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월 종북척결시민대회를 갖겠다고 선언하며 이재명 시장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종북발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미홍 전 KBS 앵커의 사회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등 보수 논객들이 무대에서 종북척결 토크쇼를 진행했다.

영화배우 김부선, 페이스북에 실명 비판

“이재명 변호사는 무책임한 변호사”

[가십gossip세계]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변호사를 실명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김씨는 지난 2일 올린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변호사님 내 아이 아빠 위자료 유산 양육비 모두 받아준다고 하시더니 어느날 행불 되셨습니다”며 “덕분에 저 쫓쫓 굶고 있습니다”라고 비판.

이어 김씨는 “어이하여 귀하는 거짓약속을 하셨는지요”라며 “당신 아주 무책임한 변호사 맞습니다”라고 직격탄.

한편 김씨는 이날 올린 자신의 글을 자체 삭제해 폐친들의 궁금증을 자아 내기도.